

신민설(新民說)과 천민설(天民說)의 길항:

이해조의 「자유종」

김 종 욱*

I. 「자유종」이라는 텍스트

이해조의 「자유종」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하기 직전이었던 1910년 7월 30일에 광학서포에서 출간되었다. 당시 대한제국은 외형적으로는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긴 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국내적으로는 통감부와 이사청에 의해 (반)식민질서에 편입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제목만으로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주권을 빼앗기고 민족적 부자유 상태에 처하기 직전에 울린 ‘자유종’이기에 높이 평가받았던 것이다. 이 무렵 이해조가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조지 워싱턴의 일생을 그린 「화성돈전」(회동서관, 1908.04)을 번역한 바 있고, 비록 「화성돈전」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을지라도 미국 독립의 상징물이 ‘자유종(Liberty Bell)’¹⁾이었던 것도 이러한 평가에 설득력을 높여 주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자유’라는 말이 작품의 첫머리에서 언급되긴 하지만, 자유는 “사람 사이에 여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자유의 종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의 주립청사(현 독립기념관)에 있다. 이 종에는 “모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표하라”(레위기 25: 10)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는데, George Lippard라는 소설가가 「Fourth of July」(1776)라는 소설에서 이 종이 미국 독립선언의 순간에 울렸다고 쓴 뒤 미국 독립의 상징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되어 남자의 압제를 받아 자유를 빼앗기면 어찌 희한코 극난한 동물 중 사람의 권리를 스스로 버림이 아니라 하리오”(01면)²⁾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 속에서 파악된 것이지,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의 국제관계 속에서 파악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³⁾ 또한 자유라는 추상적 개념이 ‘자유중’이라는 구체적 형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들은 이해조의 자유에 대한 지향을 민족적 저항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조를 제국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이인직과 구별되는 신소설작가로 의미화했다. “개명된 독립국가의 의전한 국민으로서 자유를 찾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새날을 회구하는 염원”⁴⁾을 담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자유중」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중」에는 ‘토론소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보통의 경우 서사 내용을 염두에 두고 ‘○○소설’라는 명칭을 붙인 것과 달리 형식적인 특성을 내세워 ‘토론소설’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그래서 ‘토론소설’이라는 명칭에 주목한 여러 연구에서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 「절영신화」와 같은 문답체 소설과의 관련성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천중가절」과

2) 이해조, 『자유중』, 광학서포, 1910. 이하 작품을 인용할 때에는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인용 말미에 면수를 밝히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3) 신춘지는 개화기 여성 교육기관이었던 여자보화원에서 간행한 《여즈지남》의 창간호에 실린 장도빈의 「축사」에서 “어둡고 적막한 저 여자 사회에 자유중 한 소리로 일천만 자매의 깊은 꿈을 깨우니 몇 천 년 금고 중에 있던 여자들의 몸이 자유로 활동하여 문명한 새 공기를 먹는도다”라는 대목에 주목하여 「자유중」과 “1908년 4월에 발간된 《여즈지남》과의 관계는 우연치 않게 같은 주장을 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춘자, 「여성의 토론과 사회현실의 수용」, 《여성문체연구》 16집, 1988, 3면)

4) 전광용, 「속 자유중」, 《사상계》, 1956.09, 127면.

5) 개화기에 발표된 토론체를 연구한 김주현에 따르면 《대한민보》에 수록된 토론체 작품은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토론체 작품과 달리 “서술을 통해서 토론의 상황이 제시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결미에 가사가 없다는 점”(김주현, 「개화기 토론체 양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9, 25면)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자유중」은 「절영신화」와 유사한 형식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서 《대한민보》에 발표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

같은 연설체 소설과의 비교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유중」이 출판 전에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연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내용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등장인물들의 토론 내용을 통해서 여성해방의식이라든가 교육구국론, 그리고 작가의 소설관 등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구명하려는 작업 또한 지속되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에 기대면서도 「자유중」의 사상적 위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작품이 작가의 사상을 대변하는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설체에 가깝다는 의견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들이 개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차이를 ‘공자에 대한 존숭(尊崇)’을 둘러싼 Kang우웨이와 량치차오의 대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흔히 ‘존공’의 문제를 위정척사 계열의 전통적 지식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자학의 전통 속에서 성장했던 개화 계열의 지식인들 역시 이 문제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II. 개화기 여성운동과 토론 형식의 의미

「자유중」은 이매경 여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신설현, 홍국관, 강금운 등 네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서사문학에서 나타나는 묘사나 서술이 사라진 채 텍스트가 등장인물의 대화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1908년 음력 1월 16일(양력으로 환산하면 2월 17일) 밤으로 제한되어 있고, 공간적 배경 역시 이매경 여사의 집으로 한정된 점 등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서사양식이 아니라 극양식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중」을 선뜻 극양식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은 무대 상연을 위한 등장인물의 행동이 없다는 사실⁶⁾ 외에도 텍스트 곳곳에

을 것이다.

6) 조동구, 「‘자유중’ 연구: 이해조 문학의 재평가」, 《연세어문학》, 14-15집, 1982, 7면.

서 발견되는 서술자의 흔적 때문이다. 작품의 서두는 서술자의 말이다. 등장인물의 말은 모두 “—올시다”나 “—오리다”와 같이 경어체 어투를 사용하고 있음에 비해 이 대목만 “—극난하다”(01면)와 같이 평어체 어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의 말미에서 “여러 부인 중에 한 부인이 일어나서 말하되”(40면)라든가 작품의 중간 부분에서 등장인물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깔깔 웃으며”(36면)도 서술자의 말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자유종」은 서술자가 부재한다기보다 서술자가 직접화법을 활용하여 인물들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 서사물일 따름이다. 고전소설에서 등장인물의 말이 “—더라”의 형태를 띤 간접화법으로 전달되었던 것과 달리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말을 구분하여 직접화법으로 전달하는 근대소설 초기의 변화가 극대화되어 나타난 것이다.⁷⁾

그런데 「자유종」에서는 발화자가 괄호 속에 명시되어 있어서 말의 소유권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홍국란은 ‘잡담소설’이라고 통칭되는 음탕하고 처량하고 허황한 이야기를 금지하기 위해 “우리 여자 사회가 단체하여 문부 관리에게 질문 한번 하여 보옵시다.”(14면)라고 제안한 뒤에 “여보, 사회단체가 그리 용이하오? 우리나라 백 년 이하 각항 단체를 내 대강 말하오리다.”(14면)라고 언급한다. 이 대목은 의미상 이전에 했던 말을 반박하는 내용인데다가 ‘여보’라는 호칭까지 삽입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말로 보기 어렵다.⁸⁾

7) 직접화법의 경우에도 등장인물의 말은 서술자에 의해 전달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서술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최대한 억제했다는 의미일 뿐, 직접화법을 통해 말하고자 표현했던 어떤 예술적인 의도는 서술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술자가 자신의 권능을 제한하고 등장인물의 말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개화기소설에서 직접화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은 타인의 말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든가 등장인물이 머물고 있는 허구세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의 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8)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주목한 이는 임화였다. 그는 “국란 부인의 자문자답같이 되는데 내용과 문장의 맥락으로 보아 분명 딴 부인의 말 같다”(임화, 『개설 신문학사』, 《조선일보》, 1940.05.03. 임규찬·한진일 편, 『신문학사』, 한길사, 1993, 251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광용(「자유종」, 《사상계》, 1956.08, 222면)은 이 부분을 매경의 말로 인용한 바 있고, 최근에 최성윤(「이해조의 ‘자유종’에 나타나

그렇다면 이 말의 발화자는 누구일까? 홍국란이 아니라면 신설현, 이매경, 강금운 중의 한 사람이겠지만, 이 말을 이어받는 이가 신설현이므로 이매경과 강금운일 가능성만 남는다. 그런데 신설현이 “내 나라 사람을 무식하다고 능멸하여 권고 한마디 없으면 유식하신 매경 씨만 홀로 사시려오?”(22면)라고 말한다거나 “매경 씨 말씀에 자녀를 교육하자 함이 진리를 아시는 일이오”(22면)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매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매경은 생일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인사치레밖에 말한 적이 없기에 이 대목을 이매경의 발언으로 보아야 신설현의 비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홍국란의 말 중에서 “여보—” 이후의 말은 이매경의 말로 보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이렇게 홍국란의 말과 이매경의 말을 구분하게 되면 「자유중」은 총 16개의 단락으로 분절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등장인물 간의 토론이 학문과 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자유중」은 발화 주제와 의미 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가) 작가의 변(①)
- 나) 토론회 제안: 신설현(②)→이매경(③)
- 다) 시국에 대한 토론:
 - 여성 교육 신설현(④)→강금운(⑤)→홍국란(⑥)→이매경(⑦)
 - 자녀 교육 신설현(⑧)→홍국란(⑨)→이매경(⑩)
- 라) 꿈 이야기 제안: 강금운(⑪)
- 마) 꿈 이야기: 신설현(⑫)→이매경(⑬)→강금운(⑭)→홍국란(⑮)
- 바) 토론회 마무리: 어느 부인(⑯)

이렇게 분절해 보면 「자유중」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의 발언 횟수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토론회를 제안한 신설현의 말(②)과 생일잔치의 주인공인 이매경의 인사치레(③)를 서론으로 본다면,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된 이후 네 사람은 세 차례씩 번갈아가며 발언하게 되는 것이다. 금운이 꿈 이야기를 제안한 것도 토론에서 한번밖에 발언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는 교육구국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1집, 2001, 110면) 또한 동일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인 형평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다르다. 첫 번째 주제인 여성 교육과 관련해서 신설현(④)이 “여러분 부인들은 대한여자교육계의 별방침을 연구하시오”(7면)라고 여자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강금운(⑤)은 “설현 씨는 학문 설명을 자세히 하셨으나 그 성질과 형편이 그래도 미진한 곳이 있습니다.”(7면)라고 보충 설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준다. 물론 즉각적인 한문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홍국란(⑥)과 강금운(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긴 하지만, 이매경(⑦)이 홍국란(⑥)의 의견을 “여보, 사회단체가 그리 용이하오?”(14면)라면서 전면적으로 반박한 것에 비하면 그 대립의 정도는 덜한 편이다. 강금운과 홍국란의 의견 차이는 한문 폐지를 당연시하면서도 다만 그 시기를 둘러싼 급진론과 점진론의 차이였을 뿐이다.

두 번째 주제인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토론이 펼쳐진다. 신설현(⑧)은 이매경(⑦)을 비판한 뒤, “지금 남자와 지금 여자를 조롱 말고 이 다음 남자와 이 다음 여자나 교육을 좀 잘하여 봅시다”(21면)라고 자녀 교육으로 논제를 옮겨준다. 이후 홍국란(⑨)은 신설현(⑧)에 대하여 “그 말씀 대단히 좋소. 자식 기르는 법과 가르치는 공효를 많이 말씀하셨으나 자식 사랑하는 이유가 미진한 고로 여러분 들으시기 위하여 그 진리를 말씀하오리다.(25면)라고 논제를 확장해 가지만, 이매경(⑩)은 여기에서도 홍국란(⑨)을 “자식의 진리를 자세히 말씀하셨으나 그 범위는 대단히 넓다고는 못하겠소.”(30)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중」에서 등장인물의 대화와 토론은 신설현이 먼저 논제를 제시하면 강금운이나 홍국란이 이를 보충하여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매경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종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신설현 대 이매경이라는 구도로 논쟁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모습은 꿈 이야기에서 신설현과 강금운과 홍국란이 대한제국의 ‘독립’을 기원하는 것과 달리 이매경은 대한제국 ‘개명’의 꿈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⁹⁾

9) 최성운, 앞의 글, 114면.

그런데 「자유중」에서 펼쳐지는 여성들의 토론은 단순히 작가의 상상적 허구로 치부할 일만은 아니다. 개화기 여성단체라고 할 수 있는 여자교육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자유중」과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여자교육회가 처음 조직된 것은 1906년 6월이었다.¹⁰⁾ 1906년 5월 현모양처를 목표로 한 여성 교육 기관으로 양규의숙(養閨義塾)이 설립된 후, 이 학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여자교육회가 발족된 것이다. 여자교육회는 양규의숙의 재정적인 후원에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의식을 계몽하고자 노력하였다. 처음에는 연설회만 개최하다가 토론회도 함께 열면서 부인 의복 개량부터 학문과 교육의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두고 토론을 전개했던 것이다.¹¹⁾ 이와 함께 토론회의 방식도 “제5회에는 임원진 부인과 찬무원인 남자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제9회까지는 부인들만으로 가부의

10) 여자교육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정경숙의 「大韓帝國 末期 女性運動의 性格 研究」(이화여대 박사논문, 1989, 158~224면)에 잘 정리되어 있다.

11) 지금까지 알려진 여자교육회 통상회의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1906.07.25. 여자 교육의 필요
- ② 1906.08.11. 부인의 교육하는 방침
- ③ 1906.09.25. 외화(外華)를 숭상하는 것이 실지(失地)를 숭상하는 것만 못하다
- ④ 1906.10.11. 유아를 교육함이 엄절히 단속하는 것보다 화평히 인도하는 것이 가함
- ⑤ 1906.10.25. 부인(婦人)도 천색의복(淺色衣服)보다 심색(深色)을 착함이 가하다
- ⑥ 1906.11.09. 부인(婦人)도 산업에 용력(用力)하여 남자만 의뢰치 아니함이 가하다
- ⑦ 1906.11.25. 여자도 장의(長衣) 쓰는 것보다 벗고 당기는 것이 가함
- ⑧ 1906.12.06. 부인의 의관제도를 개량함이 가함
- ⑨ 1907.01.15. 부인이 사회상에 교제하려면 내외 아니함이 가하다
- ⑩ 1907.02.22. 부인이 내외하는 법을 폐하려면 덕의상 교육을 선수(先受)함이 가하다
- ⑪ 1907.03.09. 수요(壽夭)는 위생(衛生)에 재하고 운수에 부재
- ⑫ 1907.03.23. 부강지요(富強之要)는 공업(工業)이 승어상업(勝於商業)이라
- ⑬ 1907.04.08. 권리경쟁(權利競爭)이 불여지식경쟁(不如智識競爭)이라
- ⑭ 1907.04.22. 학문이 승어자본(勝於資本)
- ⑮ 1907.05.21. 총명(聰明)이 불여둔재(不如鈍才)
- ⑯ 1907.06.20. 여자총명(女子聰明)이 승어남자(勝於男子)
- ⑰ 1907.07.19. 언론(言論)이 불여실행(不如實行)

편을 나누어 주제 토론을 하였으며, 10회부터는 토론회 외에 제의 안건을 회의에 붙여 가결 시행케 하고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의안은 따로 위원을 선정하여 정부에 헌의 교섭토록 하¹²⁾는 모습으로 점차 발전시켰다.

「자유중」에서 이매경은 이러한 여자교육회의 활동을 언급한다. “여자교육회니 여학교니 하는 것도 권리 없고 자본 없는 부인에게만 맡겨두니 어찌 흥왕하리오.”(20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중」에서 이매경이 여자교육회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은 여자교육회의 변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초기에 양규의숙의 후원 단체로 출발했던 여자교육회는 1907년 2월 무렵 을사조약 체결 당시 내부대신이었던 이지용(李址鎬)의 부인 이옥경(李鈺卿)을 총재로 추대하면서 변화를 모색한다. 그런데, 이옥경이 당시 국내 정치에서 핵심 이슈였던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친일적인 행보를 보이자 일군의 여성들, 특히 상류층 부실(副室) 출신의 여성들이 진명부인회를 새로 결성¹³⁾하면서 여자교육회는 상류층 정실(正室) 위주로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이옥경 총재 중심의 여자교육회는 기존의 양규의숙 후원을 중단하는 대신 1907년 4월에 여자보학원을 새로 설립한다. 그리고 내부대신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대한제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¹⁴⁾을 받아 여자보학원의 확장을 꾀하는 한편, 최초의 여성잡지라고 할 수 있는 《여즈지남》을 여자보학원 이름으로 발간하여 여성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자교육회는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행사 비용 등으로 많은 예산을 허비한 결과 적자가 누적되어 여자보학원의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1908년 5월 강윤희, 최재학, 이석영 등이

12)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86면. 이와 관련하여 홍국란이 “문부 관리에게 질문 한번 하여 보옵시다”라고 말한 부분은 눈길을 끈다.

13) 정경숙, 앞의 논문, 97면.

14) 이옥경이 여자교육회의 총재로 취임한 뒤 대한제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당시 여자교육회의 찬무장을 맡았던 법무대신 조중응은 1907년 4월 25일 “일반 여자도 동등권한을 담임할 시대를 당하여 무축(巫祝)을 불신(不信)하고 교육을 발달케 하”라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女會 移接」, 《황성신문》, 1907. 04.28.) 이 덕분에 여자교육회는 대한제국 황제로부터 여자교육회관이나 교사로 사용할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수리비에 보태도록 친원을 하사받기도 했다.

중심이 되어 여자보학원유지회를 새로 조직하고, 새 임원과 교사진을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기존의 여자교육회와 새로 결성된 여자보학원유지회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1908년 6월경에는 강윤희 등이 새로 양원여학교를 설립하자 학생 27명이 여자보학원에서 양원여학교로 옮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¹⁵⁾ 당시 이해조는 여자보학원과 양원여학교 사이의 갈등에서 여자보학원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있었던 듯하다. 1909년 7월에 있었던 양원여학교 제1회 창립기념식에 이해조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¹⁶⁾ 이때경이 여자교육회에 대해서 “권리 없고 자본 없는 부인에게만 맡겨두니 어찌 흥왕하리오.”(20면)라고 비판한 것은 여자교육회 총재였던 이옥경의 무능을 비판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자보학원이 양원여학교와 갈등을 겪던 무렵 이해조 역시 돈명외숙에서 분규를 겪고 있었다. 돈명외숙은 1906년 왕실 종친이었던, 이준용, 이재극, 이지용, 이기용 등에 의해 설립되었는데,¹⁷⁾ 이들이 학교 경비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삼백석지기 토지를 기부하는 것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당시 돈명외숙 숙감¹⁸⁾이던 이해조는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학생들의 자퇴로 실패하고 만다. 따라서 「자유중」의 다음 대목은 이때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여겨진다.¹⁹⁾

15) 「여학도 퇴학」, 《황성신문》, 1908.06.30.

16) 「양원(養源) 기념」, 《황성신문》, 1909.07.16.

17) 송민호, 「이해조의 근대적인 교육관과 초기 소설의 윤리학적 사상화의 배경」, 《현대문학연구》 33, 2011, 76~77면.

18) 이해조가 돈명외숙에 합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송민호는 이해조의 교육 경력과 종친 관계를 들고 있으나(송민호, 앞의 논문, 77면), 1906년 3월 8일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광고>로 미루어보건대, 신야외숙 설립 때 이재극(100원)이나 이지용(50원)의 도움을 받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19) 이러한 이해조의 입장은 「학계의 전망증」이라는 글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今日의 學校를 創立호는 者는 必曰 我가 雖我家를 賣호며 我産을 蕩호지라도 此校를 永保호리라하다가 明日은 因忘호고 今日의 學業을 受호는 者는 必曰 我가 雖我頂을 磨호야 我睡에 放호지라도 此業을 修호리라하다가 明日은 因忘호니 教育教育이라 云호는 者 已十數年에 優蹟이 尙無호야 學校는 纔起旋廢호고 學生은 乍勤

관공립은 화육 학교라 실상은 없고 문구뿐이요, 각처 사립은 단명 학교라 기본이 없어 번차례로 폐지할 뿐 아니라, 무론 아무 학교든지 그 중에 열심한다는 교장이니 찬성장이니 하는 임원더러 묻되, 이 학교에 제갈량과 이순신과 비사맥과 격란사 돈 같은 인재를 교육하여 일후의 국가 대사를 경륜하려고 하면 열에 한둘도 없고, 또 묻되 이 학교에 인재 성취는 이 다음 일이요, 교육 사회에 명예나 취하려고 하면 열에 칠팔이 더 되니 그 성의가 그러하고야 어찌 장구히 유지하겠소?(19면)

주지하듯이 이해조가 많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회적인 관심을 소설적인 소재로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 있었다. 「모란병」, 「월하가인」과 「소학령」에서 모두 당대에 관심을 끌었던 여러 사건을 활용하여 대중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이다.²⁰⁾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자유중」 역시 당시 여성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여자교육회의 분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작가가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 학교를 설립했던 명망가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지용-이옥경 일가에 대한 태도 또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태도를 전제한다면, 이 소설의 형식적 특성인 토론 방식 또한 새롭게 의미화할 수 있을 것이다. 등장인물의 대화만으로 이루어진 「자유중」은 서술자 혹은 작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작가의 세계관을 대변하고 인물들의 말을 자신의 맥락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서술자가 부재한 것이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이지용-이옥경에 대한 비판은 서술자 나아가 작가와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당대의 실력자였던 이지용-이옥경에 대한 비판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III. 공자를 옹호하며 유생을 비판하기

「자유중」은 이해조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홍국란, 강금운, 신설현이 여성

終惰하라 醫治가 無方하니 此病이 果何如히 危急하뇨.”

- 20) 여기에 관해서는 줄고, 「이해조 소설과 『금고기관』의 관련 양상-‘월하가인’을 중심으로」(《인문논총》, 74-1, 2017)와 「‘소학령’의 정치적 읽기」(《우리말글》 68, 2016)를 참조할 것

교육과 자녀 교육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생일잔치였던 만큼 청첩을 받고 참석한 네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생일잔치의 주인인 이매경은 자신을 “친정이나 시집이나 삼한 갑죽”(33면)이라고 소개한다. 신설현도 “옛날 태평시대에 숙부인까지 바쳤”(01면)다고 말하고 있는데, 숙부인은 정3품 당상관의 부인을 의미한다. 강금운 또한 “우리 영감 평양 서운으로 있을 때”(39면)라고 말하고 있는데 평양 서운은 종4품에 해당한다. 홍국란만 신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매경의 생일잔치에 청첩되었다는 사실로 보아 다른 사람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발언할 때에 모두 “—하리오”라든가 “—습니다”, 혹은 “—올시다”나 “—시다”와 같은 경어체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상류층 여성들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중」의 토론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상류층 여성들이 유생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들에 따르면 유생들은 자국의식을 갖지 못한 채 중화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신설현은 『사략』, 『통감』으로 제일등 교과서를 삼으니 자국정신은 간 데 없고 중국혼만 길러서 언필칭 『좌전』이라 『강목』이라 하여 남의 나라 기천 년 흥망성쇠만 의논하고 내 나라 빈부강약은 꿈도 아니 꾸다가 오늘 이 지경을 하였소.”(06면)라고 말한다. 강금운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생들이 정치, 법률, 철학, 화학, 이화학, 농학, 상학, 공학과 같은 실용적인 학문에 무지할 뿐더러 “속은 킁킁하고 외양만 번주그레한 위인들이 광수의만 입고 꿩어만 앓아 공자님 도학이 이뿐이라 하여 고담준론을 하면서, 이렇게 하여야 집을 보존하고 인군을 섬긴다 하여 자기 자손뿐 아니라 남의 자제까지 연골에 버려 골생원님이 되게 하”(08면)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공자의 도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겉모습만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매경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는 유생들이 “괴팍한 위인에 야매한 언론으로 천하대세도 모르고 척양합시다, 척왜합시다 상소나 요명차로 눈치 보아가며 한두 번 하여, 시골 선배의 칭찬이나 듣는 것”(16면)을 바랄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척화도 형편대로 하는 것이지 붓끝으로만 척화 척화

하면 척화가 되”(16면)는 것은 아니라면서 춘추전국시대에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외교적인 수완을 바탕으로 춘추시대라는 난세에 약소국 정나라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음을 상기시킨다. 이와 함께 향교와 서원을 설치한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 채 “밥자리”(16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방 유생들 또한 강하게 비판한다.

이렇듯 중화주의에 깊이 몰들어 자국의식을 갖지 못한 유생들, 허례허식에 사로잡혀 실질을 무시하는 유생들, 외교적인 방법 대신에 무조건적으로 척왜적양(斥倭斥洋)만을 외치는 유생들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자를 직접 비판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자를 끌어들인다. 신설헌은 『예기』와 『소학』을 논거로 삼고 있으며, 이매경도 『예기』와 『시전』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자를 “대성인”(신설헌)이라 존중하면서 유교를 “우리 대종교”나 “신성하신 진리”(강금운) “동양 제일 종교”(이매경) 등으로 예찬한다.

이처럼 「자유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유생들을 비판하면서도 공자의 사상을 가치판단의 준거로 삼고 있거니와, 그 까닭은 이매경의 말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매경은 태서 정치가의 입을 빌어 “남의 나라의 강약허실을 살피려면 먼저 그 나라 종교 성질을 본다”(15면)고 하면서, “종교에 의귀할 바가 없으면 비록 인물이 변성하고 토지가 강대한 나라로 군부에 대포가 가득하고 탁지에 금전이 가득하고 공부에 기계가 가득할지라도 수백 년 전 남미 인종과 다름없”(15면)다고 주장한다. 동양의 경우 “제일종교는 세계의 독일무이하신 대성지성하신 공부자”(15)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 유생들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할 종교를 타락시켰다고 한다. 「자유중」에서 등장인물들이 전통 유생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공자를 존숭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서세동점의 현실 속에서 동양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종교라는 종지는 무슨 종자며, 교지는 무슨 교자인지 착각 접어 먼지 속에 파묻고, 싸우나니 양반이요, 다투나니 재물이라. 이것이 우리 신성하신 대종교라 하오. 한심하고 통곡할 만도 하오. 종교가 이렇듯 부패하니 국세가 어찌 강성하겠소?(17~18면)

공자의 사상을 종교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공자를 유교의 교조(敎祖)로 추앙하려는 공교운동(孔敎運動)이 나타났던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다. 1898년 6월 Kangyuei는 광서제(光緒帝)에 올리는 상소문 「請尊孔聖爲國敎立敎部敎會以孔子紀年而廢淫祠摺」에서 공교를 국교로 삼아 교부(敎部)·교회(敎會)를 세우고 공자 기년을 정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모든 인간이 하늘의 아들(天之子)이므로 하늘에 제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천민설(天民說)’을 바탕으로 황제가 하늘에 대한 제사를 독점해 왔던 전통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제사에 참여할 것을 제안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봉건적 신분질서로부터 탈피하여 인간이 모두 평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혁명적인 의식의 전환이었던 셈이다.

우리는 「자유중」에서 이러한 Kangyuei의 주장을 만날 수 있다. 제사에 상하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참석할 수 있다는 이매경의 주장은 인간을 하늘이 만든 존재로 파악했던 ‘천민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종교에야 어찌 귀천과 남녀가 다르겠소? 지금이라도 종교를 위하여면 성경현전을 알아보기 쉽도록 국문으로 번역하여 거리거리 연설하고, 성묘와 서원에 무애히 농용하며, 가령 제사로 말할지라도 귀인은 귀인 예복으로 참사하고 천인인 천인 의관으로 참사하고 여자는 여자 의복으로 참사하여 너도 공자님 제사 나도 공자님 제사 되기 일반이라 하면 종교 범위도 넓고 사회단체도 굳으리다.(18-19면)

홍국란이 주장했던 ‘자녀공물론(子女公物論)’ 역시 Kangyuei의 주장이다. 홍국란은 강남해 곧 Kangyuei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거니와, Kangyuei에 따르면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가정은 대동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이어서 폐지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부모와 부부의 관계를 끊고 가족 제도를 완전히 해체하기 어렵기에 Kangyuei는 ‘천민설’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다. 또한 공립정부는 사람들이 공공으로 세운 것이니 공립정부는 마땅히 공공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며 돌봐주어야 한다”²¹⁾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적서 차별이라든지 신분차별, 그리고 지역차별을 혁파하자고 주장했던 홍국란과

21) Kangyuei, 이성애 역, 『대동서』, 을유문화사, 2006, 452면

이매경의 주장이 모두 ‘천민설’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렇듯 「자유종」에서는 Kang유웨이의 주장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직접 발화되고 있거니와, 구성방식에서도 Kang유웨이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자유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소설의 서두에서 신설현은 자신을 “가련한 민족 중의 한 몸”(01면)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비참지경”(02면)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등장인물 모두에게 발견되는데, 이매경도 신설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수참하고 통곡할 시대”(02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강금운 또한 자신이 처한 시기를 “현금 비참한 지경”(09면)이라고 말한다. 이후 네 명의 부인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학문과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략으로서 여성과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서는 각자의 희망을 담은 꿈 이야기로 매듭을 짓는다.

이러한 삼단 구성방식은 가서-결이라는 전통적인 논설의 구성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렇지만, 눈을 돌리면 Kang유웨이가 주장했던 ‘삼세설(三世說)’과 일맥상통하기도 하다. Kang유웨이는 『춘추 공양전』의 하휴(何休)의 주석에 따라 역사를 거란세(據亂世) → 승평세(升平世) → 태평세(太平世)로 파악하는 한편, 『예기』 예운편(禮運篇)에 근거하여 어지럽던 세상이 잠시 무사하고 평안해지는 소강(小康)을 거쳐 차별이 없고 모두가 화평하게 잘 다스러지는 대동(大同)으로 나아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은 전통적인 유교적 원리를 서양의 진화론적 사유에 따라 재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써 Kang유웨이의 대동사상은 순환론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발전론적 역사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종」은 거란세에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승평세를 향한 방략을 모색하는 한편, 태평세를 향한 꿈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자유종」은 어쩌면 Kang유웨이의 공교 운동과 내용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자유종」과 관련한 여러 논의에서 Kang유웨이보다는 량치차오와의 연관성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²²⁾ 잘 알려져 있다시피 1898년 스승

강유웨이를 좇아 중국의 개혁을 도모하면서 「論支那宗教改革」 등을 통해서 공교운동에 적극적으로 찬동²³⁾했던 량치차오는 일본으로 망명한 뒤 《신민 총보》 등을 통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량치차오는 국가의 보존(保國), 민족의 보존(保種), 종교의 보존(保教)이라는 삼대 과제 중에서 나라를 보존하는 근거로서 ‘보교’를 주장하는 강유웨이와는 달리 국가의 존립이 모든 문제에 우선하는 근본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공교비종교론(孔教非宗教論)’을 제시하면서 종교의 보존(保教)과 공자의 존숭(尊孔)을 분리시킨다.²⁴⁾

이처럼 ‘존공’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유웨이가 종교의 차원으로 확장시키고자 했던 것과 달리 량치차오는 그것을 거부했다. 대신 량치차오는 1903~1905년 사이에 공덕과 사덕 사이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학을 재발견한다. “잠시 버렸던 유학적 도덕주의를 다시 찾아들고 강한 민족국가를 만드는 데도 유학적 도덕, 이기심을 철저히 몰아낸 발본색원의 양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덕적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정치체제와 연결된다. 량치차오는 개명군주제를 주장하는 보수로 전략”²⁵⁾한 것이다.

이러한 량치차오의 입장은 대체로 신설현의 주장에 반영되어 있다. 신설현이 주장했던 자국인식에 대한 강조는 기실 국가인식을 지닌 신민의 탄생을 주장했던 량치차오의 ‘신민설(新民說)’에 근거한 것이다. 신설현이 량치차오에 기대어 “대저 사람이 일을 하려면 이기려다가 패함도 있거니와 패할까 염려하여 당초에 하지 아니하면 이는 당초에 패한 사람이라”(31면)²⁶⁾를 강조한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와 달리 이매경은 강유웨이의 ‘천민설’에 따

22) 우림길, 『한국 개화기문학과 양계초』, 박이정, 2002.

23) 량치차오는 1901년에 쓴 「南海康先生傳」에서 강유웨이를 “孔敎의 마르틴 루터”라고 말한 적이 있다.

24) 금장태, 「근대 유교 개혁사상의 유형과 사상사적 전개」, 『국사관논총』 제2호, 1989.

25) 이혜경, 『량치차오: 문명과 유학에 얽힌 애증의 서사』, 태학사, 2007, 22면.

26) 이 말은 『논어』 헌문 편에 있는 “子路宿於石門 晨門曰 奚自. 子路曰 自孔氏. 曰 是知其不可而爲之者與”에서 유래한 말이다.

르고 있다. “근래 신교육 사회는 구교육 사회보다는 낫다 하나 불심상원이오.”(19면)라고 친구 사회 모두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매경의 사상적 입지점이 다른 인물들보다 보수적인 위치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신분제를 철폐한 갑오경장을 비판한다든지 혹은 ‘개명’의 꿈을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정치적 의식은 다른 인물들보다 뒤떨어져 있어서 사회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종」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등장인물을 작가 이해조의 사상을 대변하는 메가폰적 인물로 바라보았다. 그 결과 「자유종」은 형식적으로는 등장인물의 독립성이 극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작가 이해조에 의해 등장인물의 말이 하나의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여성들이 토론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라져버린 채 남성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는 평가²⁷⁾라든가, 토론이 대립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앞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보완하고 부연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주장을 연결”하는 “매우 긴 하나의 연설문”이라는 주장²⁸⁾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광용의 선구적인 연구²⁹⁾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유종」에 등장하

27) “이해조는 안국선과는 달리 민족주의적 계몽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남녀차별이나 반상차별 철폐 등 국민 주체의 형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인물들의 입을 통해 말하는 전략으로 계몽적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몽 이념의 보편적 주제를 전달하는 것일 뿐 여성의 생활 세계의 감수성이나 오랜 기간 여성적 담론의 세계였던 한글소설 등은 모두 폐습으로 비판되는 특징을 보여준다.”(이선옥, 「근대 공론장에서의 여성 담론:연설체 신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4, 2015, 77면)

28) “「자유종」에서 인물간의 대화는 단일한 공통된 견해를 차례대로 나열하는데 불과하다. 이러한 인물의 발화내용들은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토론’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작중인물들 이외의 또다른 청자를 상정하고 그들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연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자유종」에서 인물의 발화가 사고의 개성적 특면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운’의 발언을 ‘설현’의 발언이라고 간주해도 큰 차이가 없게 된다.”(김중수, 「한국 근대소설의 정치적 담론 수용 양상 연구-근대 계몽기의 토론체 소설 ‘자유종’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13, 2000, 135면)

29) 전광용은 등장인물의 개별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이 토론의 중심이 되는 네 부인

는 인물들의 개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각 인물들이 마지막에서 언급하고 있는 ‘독립’과 ‘개명’의 꿈은 위정척사와 개화 사이의 대립이라기 보다는 개화세력 내부에서 ‘신민설’을 주장했던 량치차오 노선과 ‘천민설’을 주장했던 Kang유웨이 노선의 대립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모두 작가의 목소리로 환원했을 때, 이해조의 의식에서 발견되는 내적 모순은 이 때문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신설현과 이매경 중에서 누가 작가 이해조의 분신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제2장에서 언급한 대로 신설현이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이매경이 토론을 매듭짓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해조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이매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해조가 Kang유웨이보다 친연성을 느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강금운은 “내 나라 지리와 역사를 모르면서 『제갈량전』과 『비사맥전』을 천만번이나 읽”(8면)기를 권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재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들이 제갈량이나 비사맥 같은 인물을 키워낼 만한 관심과 의욕을 지니고 있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들이 길러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계몽되지 않는다면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신설현도 “외국 의리도 쓸데없고 한두 개 영웅이 혹 국권을 만회하여도 쓸데없고, 오직 남녀청년이 보통지식이 있어서 자주권을 회복하여야 확실히 완전하다”(34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당시 량치차오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여러 논설들을 번역하는 한편 『몽견제갈량』(광학서포, 1908)을 위시한 여러 역사전기소설을 창작하고 있었다.³⁰⁾ 하지만, 이해조의 영웅주의 비판은 뿌리 깊은 것이었다. 이해조가 비스마르크를 연상시키는 철혈촌을 비판한 「철세계」라든지, 일반적인 영웅서사의 문법에서 벗어나 있는 「화성돈전」과 같은 번역물은 그 좋은 예이다.³¹⁾ 그런 점에서 「자유종」에 드러난 영웅주의 비판은 작가 이해조

중에서 설현 부인이 가장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논조를 나타내고, 매경 부인은 다소 소극적이며, 국란 부인은 점진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광용, 「자유종」, 《사상계》, 1956.08, 222면)

30) 우림걸, 「개화기 소설장르의 형성과 梁啓超의 관련양상」, 《비교문학》 29, 2002, 101면.

31) 최원식, 「‘화성돈전’ 연구: 애국계몽기의 조지 워싱턴 수용」, 《민족문화사연구》

가 량치차오보다는 kang유웨이에게 사상적인 친연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IV. 맺는 말

「자유중」은 개화기 여성해방론을 주장한 글이기는 하지만, 이해조의 개인적 경험과 내밀한 욕망이 숨겨져 있는 텍스트이다. 실제로 「자유중」을 읽다 보면 각 인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작가 이해조의 경험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광수에게 집착하는 유생들의 모습에서 국민예복의정회에서 활동했던 것을 떠올릴 수 있고, 시골고라리 사회라고 언급한 지방 유생들의 모습에서 포천 회산서원의 향사답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신야의숙과 포천 유생들간의 오래된 갈등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자유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20세기 초반 동아시아 사상계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존공(尊孔)’과 ‘비공(批孔)’ 사이에서 이해조의 위치를 찾는 일이다. 공교 운동은 공자를 종교의 교조로 삼고자 한다는 점에서 ‘존공’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었지만, 일본 제국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공자를 종교적 대상으로 추앙하려는 공교 운동의 선편을 쥐었던 것은 박은식이었다. 그는 1909년에 장지연 등과 함께 kang유웨이의 대동사상에 영향을 받아 대동교(大同教)를 조직한다. 이에 유생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던 대동학회도 서둘러 종교로의 전환을 서둘러 공자교(孔子教)를 출범시킨다. 이처럼 공교 운동 역시 일제의 침략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존공’과 ‘비공’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이해조가 어떤 위치에서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해조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량치차오의 사상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자유중」에서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이매경을 통해서 kang유웨이의 입

장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거니와, 더 나아가 량치차오의 입장에서 서 있는 신설 현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조는 어찌면 캉유웨이라는 프리즘으로 량치차오를 바라보았는지도 모른다. 혹은 량치차오를 통해 캉유웨이를 발견 했을지도 모른다. 이해조의 사상적 입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량치차오와 캉유웨이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성렬, 「이해조 신소설의 재평가: 소설미학적 성취와 한계 및 그 연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 2007.
- 김종수, 「한국 근대소설의 정치적 담론 수용 양상 연구: 근대계몽기의 토론체 소설 ‘자유종’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13, 2000.
- 김희자, 「개화기소설과 여성교육론」, 《논문집》 27-1, 1988.
- 노태훈, 「‘논설’과 ‘서사’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자유종』을 통해 본 작가 이해조의 소설관」, 《한민족문화연구》 57, 2017.
- 문대일, 「이해조와 梁啓超 ‘여성해방론’의 관련 양상」, 《중국어문학논집》 94, 2015.
- 송민호, 「이해조의 근대적인 교육관과 초기 소설의 윤리학적 사상화의 배경」, 《한국현대문학연구》 33, 2011.
- 신춘자, 「여성의 토론과 사회현실의 수용: 토론소설 ‘자유종’을 중심으로」, 《여성문제연구》 16집, 1988.
- 牛林杰, 「개화기 소설장르의 형성과 梁啓超의 관련양상: 토론체소설과 역사전기 소설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29, 2002.
- 유봉희, 「사회진화론과 신소설 작가, 이해조와 이인직」, 《한국학연구》 24, 2011.
- 이상훈, 「애국계몽기 신소설에 나타난 공화주의 연구: 동농 이해조의 근대사상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2-4, 2011.
- 이선옥, 「근대 공론장에서의 여성 담론: 연설체 신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4, 2015.
- 이정옥, 「근대 초기 ‘연극적 소설’과 계몽담론의 서사화 전략」, 《대중서사연구》 20-3, 2014.
- 전광용, 「자유종: 신소설 연구 9」, 《사상계》, 1956. 8~9.
- 조동구, 「‘자유종’ 연구: 이해조 문학의 재평가」, 《연세어문학》, 14~15집, 1982.
- 최성운, 「이해조의 ‘자유종’에 나타나는 교육구국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1집, 2001.
- 홍을표, 「‘자유종’의 교육구국론」, 《도남학보》 25, 2015.